

가야금 직접 만들어준 ‘父心’에 실력으로 화답한 국악 신동

광주 최병기씨 3년간 배워 4개월 제작 ‘父心’ 새겨 9살 딸 혜원양 전국대회 우수상...5월 흥부가 완창

‘부심’(父心,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전국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5월 ‘흥부가’ 완창 무대를 앞둔 9살 ‘국악 신동’ 최혜원(광주 풍암초교 3학년)양에게는 아주 특별한 악기가 있다. 혜원 양은 ‘父心’이란 붓글씨가 쓰여져 있는 가야금을 갖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12회대한민국가야금병창대회에서 혜원 양은 이 악기를 연주해 우수상을 받았다.

‘부심 가야금’은 평범한 회사원인 혜원 양의 아버지 최병기(50)씨가 직접 만들어 줬다. 최씨는 지난 3년 동안 악기장의 어깨 너머로 가야금 만드는 법을 배우 세상 하나뿐인 악기를 딸에게 선물했다.

국악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통나무, 뽕나무 등을 잘라낸 뒤 10여 년 넘도록 비, 바람, 햇빛에 놔둬야 한다. 나무가 바짝 말라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없애기 기다려야 하며, 나무마다 결과 울림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만져가며 때

때질을 해야 한다. 아무리 나무를 잘 다룬다고 해도 쉽게 배울 수도, 만들 수도 없는 게 국악기다.

금호타이어에 근무하는 최씨가 국악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2년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에서 진행한 가야금 제작 강좌에 등록하면서부터. 전통문화관에서 가야금 강습을 받던 딸이 국악에 재능이 있다는 강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국악기에 대해 알고 싶었다. 최씨는 이복수(광주시지정무형문화재 제12호)선생에게 실제 악기보다 작고 소리를 낼 수 없는 ‘미니 가야금’ 만드는 법을 배웠다.

이후 국악기 제작에 관심이 커진 최씨는 이 선생의 공방을 찾았고 “악기 만드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당시 6명이 함께 이 선생에게 악기 제작법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남아 전통적인 방법으로 악기를 만들고 있

는 제자는 최씨뿐이다. “가야금을 연주하는 딸 때문에 악기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어 배우는데 애를 먹었어요.”

나무 다루는 게 어느 정도 손에 익은 최씨는 지난해 5월 딸의 가야금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루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직장 생활 탓에 공방에서 밤을 지새우는 날도 많았다. 그렇게 나무를 깎고, 다듬어 4개월 만에 ‘부심 가야금’이 탄생했다.

“전문가 평가도 중요했지만 딸의 반응이 가장 궁금했어요. 또 제대로 된 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딸의 가야금 스승에게 악기를 연주해 달라 했는데 ‘소리가 아주 좋다’는 평을 받았어요.”

스승의 평가도 후했다. 이복수 악기장은 “전통 악기에 대한 애정과 손재주가 있다”며 최씨의 어깨를 다독여줬다.

최씨는 손수 가야금 뒷면에 한문으로 ‘부심’이란 글귀를 쓴 뒤 딸에게 전달했고, 한 달 뒤 혜원 양은 전국대회에서 이 가야금을 연주해 우수상을 받았다.

최씨가 국악기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은 남다른 딸의 국악 사랑 때문이다. 혜원 양은 오는 5월 10일 전통문화관



29일 광주전통문화관에서 최병기씨가 딸 혜원 양과 함께 자신이 직접 만든 가야금을 들려다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에서 판소리를 배운지 3년 만에 ‘흥부가’를 연주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목포유달초 ‘박제 호랑이’ 이관 논란

전남도, 영광 산림박물관 이관 요청에 학교측 “학교 상징” 반대

목포 유달초등학교에 전시돼 있는 국내 유일의 남한산 호랑이 박제(사진)를 둘러싸고 이관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 산림산업과가 최근 영광 불갑산에 내달 개관예정인 산림박물관으로 박제를 옮겨달라는 요청서를 유달초에 보내면서 논란이 불을 지폈다.

영광군은 불갑산에서 포획된 호랑이 박제인 만큼 산림박물관으로 이관을 원

하고 있다. 반면 유달초등학교와 목포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보전을 위해서라면 목포자연사박물관으로 이관해 전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관 요청 공문을 받은 유달초는 지난 25일부터 학생·학부모·교직원·동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졸업 동문들과 지역주민들은 “영광으로 이관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달초 최종근 교장은 “역사문화의 길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 학교에 전시 중인 호랑이 박제가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면서 “다음달 3일 열린 예정인 학교운영위원회에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이춘용 목포문화원장은 “영광군의 협조와 정부 지원을 받아 한국산 호랑이를 복제시켜 새로 태어난 호랑이 한 쌍을 학교와 목포시에 기증한다는 약속을 받은 이후 산림박물관으로 보내 전시를 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 불갑산에서 1908년 2월 농부에 의해 포획된 이 호랑이는 당시 암컷으로 몸통길이 160cm에 몸무게가 약 180kg였고 DNA검사결과 남한산 호랑이로 밝혀졌다. 당시 시가로 는 50마지기 값을 치르고 일본인 하라꾸지 쇼지씨가 구입했다. 국내에서는 박제 기술이 없어 일본에서 1년에 걸쳐 박제로 만든 후 1909년 기증해 106번째 전시되고 있는 유달초등학교의 상징이자 보물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o@



“농가 정책자금도 금리 인하해야”

농가 평균 부채 2736만원...30% 이상이 아직도 3%대 금리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농어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번달 기준금리를 1.75%까지 낮춘 만큼 수입 쌀 관세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자금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농가당 평균 부채는 2013년 기준 2736만원에 이르고, 지난 연말 기준 농업정책

자금 총 24조1000억원 중 3% 이상 금리로 대출된 자금이 3분의 1에 달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농어촌진흥기금, 녹색축산기금 등 농업육성기금을 연리 1%로 지원하고 있어 전남지역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따른 부담이 적다. 그러나 첨단유리온실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각종 사업별 정책자금의 금리나 기존 대출 금리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의 농가부채는 지난 2012년 가구당 1853만2000원에서 지난해 2657만1000원으로 무려 43.4%(803만9000원)나 늘어 금리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지난 2월 일반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협 대출 기준으로 정책자금 대출 17조8000억원 중 축산경영자금 등 4조5000억원이 여전히 3% 이상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정책자금 인자가 없었던 해양수산분야의 경우 금리를 낮추는 데 더욱 적극적이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올해 핵심성과목표 중 하나로 현재 3%인 어선 현대화자금 금리를 1~2%까지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중국대사에 광주출신 김장수 공식 임명

프랑스 대사 모철민...공관장 14명 인사

정부는 지난 27일 주(駐)중국대사에 광주출신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공식 임명하고 주프랑스 대사로 모철민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선임하는 등 공관장 14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주독일 대사에는 이경수 전 외교부 차관보, 주브라질 대사에는 이정관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 대사, 주캐나다 대사에 조대식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주멕시코 대사에 전비호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주코스타리카대사에 전영욱 주브라리아대

사가 각각 임명됐다.

또 주카자흐스탄 대사에 조용천 주홍콩 총영사, 주몽골 대사에 오송 전 주캐나다 공사, 주키르기스스탄 대사에 장병후 전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주카타르 대사에 박흥경 전 주이스라엘 공사, 주튀니지 대사에 김중석 전 주가봉 공사참사관, 주리비아 대사에 김영재 전 주남아프리카공화국 공사, 주볼리비아 대사로 는 이종철 전 주유엔 참사관이 각각 선임됐다.

/연합뉴스

1636 결과 **민음소망** 말하세요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1636 YTN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국가통신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홍 김서연' 양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선자들이 (주)클리어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NAVER **단비플라워** 단비물리워 농촌보호

단비플라워

축하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말하는 법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출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의 스킬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실 분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우선순위에 드립니다.